

불자 세상보기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중국 북단대 겸임교수

아동과 노인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칠곡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 등 충격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온 사회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아동·노인 학대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8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2010년 5657건에서 해마다 늘어난 지난해 6796건, 올 7월까지 4202건에 달했다.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가 지난해 3520건으로 2005년보다 72.7% 늘었다고 밝혔다.

왜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가정이 해체되고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로선다면 분명 아동과 노인 학대같은 인권 유린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많다. 갈등이 생기면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

다.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갈등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형제 간에도 한치의 양보도, 이해도 없다. 그저 자기 몫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가정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을 본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공감은 해 준다고 해도 너무나 경우가 많다.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간 돈거래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제 곧 고구 명절인 추석이다. 다가오는 추석은 각자 생활터전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럴때일 수록 지금까지 전국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난다. 또한 죄없이 학대받은 천진불들도 머릿속을 스친다.

재미와 수행삼아 가꾸는 농작물이 다 쳐도 마음이 아플진대 아이들이 아프거나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본다. 속가의 어린 동생이 생각 없이 높은 데에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낭떠러지에 떨어

져 잘못되는 일을 겪고 동생의 얼굴을 때리며 눈 좀 떠보라고 울부짖는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해서 제 스스로 사랑해 넣은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고 학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 상상이 안된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다. 곳곳에서 벌어져서 아동학대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주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과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석을 맞으며 항상 듣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이 있다. 그만큼 추석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그동안 못다한 얘기 보따리를 풀며 즐거움과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기 때문에 생겨난 말인 것 같다. 나라 안팎 곳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다가 사랑하는 집안 어른들과 형제들이 만나서 지난 세월의 자란 이야기, 재미있는 민속놀이 등을 나누다 보면 그 얼마나 풍요로운 일일까? 상상만 해도 신이난다. 가족의 힘은 분명 위대

한 것이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튼튼한 결속력이 생겨난다면 어찌 아동이나 노인학대 같이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간의 불협화음과 사랑이 결여될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다.

가끔 장남의 아픈 푸념을 듣는다. 형제들이 어린 시절, 장남으로서 부모를 대신해 공부를 가르쳤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장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이 입을 딱 뚫어 버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너무나 아박해진 형제들에게 가슴이 아파 울고 있다.

추석은 보듬달처럼 가족이 다 함께 풍성해 지는 날이다.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곳곳도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고 서로가 함께 있어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길 발원드린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사찰 홈페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손전화기가 그것도 과학 기술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필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백만 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 기기 변화는 신행문화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모바일로 사찰 홈페이지를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반응형 웹사이트와 안양 한마음선원의 포털기능이 가미된 홈페이지가 바로 이런 것을 가능케 해줬다.

올 1월부터 6개월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 7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 봉은사는 반응형 웹 시스템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반응형 웹 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PC 등 미디어기기에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현재 사찰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일반 PC에 맞춰져 있어, 스마트폰이나 일반PC용 모니터 보다 화면이 작은 태블릿 등을 이용하면 글씨가 작아 해독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반응형 웹은 웹사이트 접속기기를 판별해 자동으로 해상도를 맞춰준다. 또한 법문 등의 영상은 인터넷 영상사이트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돼 봉은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이트 쿠키메뉴, 자주찾는 페이지 아이콘 등을 통해 페이지 전환을 최소화 한 것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안양 한마음선원에 지난 1월 개통한 홈페이지를 보면 사찰 최초로 방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사이트와 연결되는 포털 기능을 지녔다. 두 사찰 홈페이지의 공통점이 또 있다. 뛰어난 기능 뿐만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신도들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봉은사특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개발했으며, 한마음선원에 모바일메시지를 개발했다. 스마트폰 기기의 진화와 함께 사찰의 신행 문화도 변화중이다.

지리산 천일기도가 시선 끄는 이유

지리산권역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기원하기 위한 세월호 지리산 천일기도를 봉행한다. 지리산종교연대를 비롯한 지리산권 단체들이 결성한 '세월호 지리산천일기도 추진위원회'가 8월 30일 실상사에서 세월호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25일까지 1,000일간 생명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합동기도와 아난법석을 펼친다.

추진위원회 고문인 도법 스님은 세월호 이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꾸고 꽃피게 하기 위해 지리산권역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지피고자 천일기도를 결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기도가 무엇보다 의미있는 건 바로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도법스님을 비롯해 성명 前로 마교황청 대사, 임봉재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가 추진위원회 고문을 맡았으며, 지

리산종교연대 삼일대표 홍현두 교무, 최세현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안상수 지리산프로젝트 공동추진위원장, 김민해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이었다.

실상사에는 상설천일기도단을 건립해 1000일 1000인 릴레이 기도를 진행한다. 지리산프로젝트 공동추진위원장이인 안상수 前 홍익대 미대 교수가 설계를 맡은 상설기도단은 세월호 희생자 수를 상징하는 304개의 태양광 등을 밝히며 추모와 다짐의 뜻을 이어가는 도량으로 꾸려진다. 생명평화결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NGO들이 기도에 동참하며 100일 간격으로 아난법석도 개최한다. 100일 아난법석은 진보·보수의 진영구도, 대결구도를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서로 다르지만 종교의 본질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거룩한 불사인 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홍 연발담당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담당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언대

아이스버킷 챌린지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기금 모금을 취지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전세계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시작됐다. 부산불교계에 지목을 받은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시작으로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일 BTN사장 등이 지목을 받고 또 챌린지에 동참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순수한 목적과 함께 단순한 유행의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계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호기심에 지켜봤지만 이젠 사명감 느껴



심산 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먼저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 설마 내가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부산불교복지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승속의 여부를 떠나 동참하고자 마음먹게 됐다. 누군가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찬물을 열 번이고 찬번이고 맞을 수 있다.

지금은 불교가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 시대이다. 스님으로서 이번 챌린지 동참에 개인의 체면이나 위위가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법회 때마다 법문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누구에 의해 주

도되며, 혹은 정치적이나 가습성으로 지나갈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의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최초다.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자비나눔 활동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 지금 챌린지에 대한 호기심을 좋게 이끄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목정 스님과, 불자단체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캠퍼스 이계영 총장, 불교연론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본일 불교 TV사장을 지목했다. 아무쪼록 불교계에도 이번을 계기로 불자들의 자비나눔에 대한 동참이 함께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27일 흥법사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이미 지목을 받아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개강 후 9월 중에 학교학생들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스버킷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후속작업 중요



홍윤기 교수
동국대 철학과

먼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현상이 한때의 흥밋거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난치병을 앓거나 사회에서 소외돼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치유의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난치병 환자 치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병의 경우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가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공약을

결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책이 미흡하다.

이와 같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아이디어를 관심 환기를 계기로 제도 마련이나 실질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 현 정부도 선거 당시 약속한 부분을 해결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

또한 챌린지 자체가 가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이 스스로 자정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소외계층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이벤트성 보도에 그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지목했다 등에만 가습성으로 몰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SNS를 활용한 캠페인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일종의 사회적 예능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 같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가깝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